

고은 불교대하소설



을 보면 그동안 잘 견디어 왔구나 하고 그분들을 맞이하고 쳐다보게 된다... 이 세상과 어디서나 사는 그런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데 허허하루 파도 소리만 듣고 사는 그들이... 처음에는 사람 모양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무슨 귀신이나... 둔갑한 백년 묵은 여우나 백년 묵은 구렁이나... 뭐냐, 그런 것이 사람의 탈만 빌려쓰고 있는 것 같아...
"만우야 네 말이 맞다. 그분들은 그 전에는 여우이기도 했고 구렁이가 되어 아

"타심통(惻心通)으로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짓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이 요즘 살펴볼 개량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해 그분도 문둥병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냥 얼굴에 병색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섬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 일을 꼭 중요하게 여겼다.
대해는 후원 구석에 둔 묵은 곡식을 꺼내어 거기에 있는 벌레들과 바구미를 집

장부(出格丈夫)가 아니겠지. 삶이나 죽을 같은 경계는 사실 하찮 나뉘는 것이오... 우리가 파리 한 마리 죽이는 일이나 들쥐 한 마리 죽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나? 그렇다면 우리 목숨도 그런 파리나 쥐와 다를 바 없는 중생의 하나하나일 따름이지."
"....."
"대해처사! 요즘 몸 괜찮으신가?"
"저 말인가요?"
"그렇대나."



다시 지진

주 느릿느릿 남의 집 담장도 넘어가거나 새 동자에 들어가 새 알을 낳을 삼키기도 했을거야...
"그렇지만 우리들은 벗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들도 몇번씩이나 그것이 되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나는... 심지어 내가 아니라 저 아래서 후원에서 공양주 노릇을 하는 소성행자 그 누나였던 일도 있는 것 같아... 그 누나 눈썹하고 내 눈썹하고 꼭 닮았지?"
"시계면 눈동자도 닮았구나. 이제 보나..."
두 아이는 인담이 데리고 올라왔던 산 꼭대기로 가는 산비탈의 바위에 걸터앉아 인담이나 누나 그리고 대해들이 상상할 수 없도록 아주 상숙한 내용으로 편애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인담이 비구니 처소인 우녀와 소성들이 각각 거쳐하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런 일은 진요한 의논 때 말고는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우녀가 인담을 찾았다. 그러나 평소대로 말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다.
"차(茶) 한잔도 없는 곳에 오셨습니까?"

어내어 거중을 하고 있었다. 대해가 심각한 한자라면 그에게 곡식을 손대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우녀였다.
"대해처사님... 그만 쉬시지요" 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그랬다. 인담의 말대로 대해의 얼굴은 누렇게 띠 있었다. 그것은 꼭 굶주린 사람의 부형(浮腫)과 비슷하였다.
"요즘 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잠도 잘 잡니다. 자고나면 거른 합니다. 무욕도에 와서 몸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쉬엄쉬엄 하시지요. 곡식 만지는 일일 땅 어린 행자들에게 맡겨도 좋겠습니다."
인담은 대해와 함께 다녔길래 되는 바 한 쪽으로 갔다. 그 아래에는 시퍼런 강물에 하얀 거품이 튀어올라 바람을 불어 들을 것처럼 달거렸었다가 여지없이 함대당하고 물러서는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 파도치는 소리가 당장 위쪽으로 솟아 울

“ 파리나 들쥐 한마리 죽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해본 적 있었나 우리 목숨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중생의 하나일 뿐이지 ”

인 담이 두 아이를 끌고 오랜 시간 공들이지 않고도 이 섬의 수평 생활에 익숙하게 만들었다. 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시키는 공부를 잘 받아들여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길가의 돌맹이를 알았다가 그 돌맹이를 잘 뛰어보니 그것이 미노석을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주 보배로운 어린 수행자가 되었다.
두 아이는 이따금 스승을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노라면 여간 대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놀랐만 하였다.
"나는 요즘 우리 어머니가 가진 곳을 알 것 같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는 늘 일만 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늘 놀기만 하시는 모양이다... 바로 그 노는 일에 실증을 내어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머니를 보았어! 어젯밤..."
"어젯밤이라면... 꿈속에서?"
"꿈이라고 할 수도 없어.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잠을 자도 그것이 잠만은 아니야... 나 이 섬으로 온 이래 그렇게 뛰가 뛰지 딱 부러지게 정하는 것이 없어졌어."
"이곳이 답답해서일까?"
"응 답답하기도 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의 개미들도 가재도 답답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꿈을 꿀거야... 하지만 그 꿈은 꿈만이 아닌 것 같다."
"우식행자! 너 도인 다 되었느냐?"
"도인이 별 것이 아니라면... 도인이 길을 가는 사람이려면... 나도 마음속으로 쉬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야! 너 도인 다 되었구나... 나는 여기 와서 이 섬에서 사는 스님들이나 어른들

라 두 사람의 귀를 쫓아먹는 것 같았다. 따라서 두 사람이 말을 나누기로 한다면 버려버려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인담이 소리쳤다. 그것은 대해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저 아래가 무욕도에서 누구라도 입적하면 화장 말고 수장(水葬) 지내는 곳이지...지나날에는 거룻배에 시신을 대워 저 바다에 내려주면 고기들이 그 시신을 데려가게 되었지."
"무서운 곳입니다. 중국 정도 말에도 이와 비슷하게 장사지내는 바람이 있었습니까?"
"이왕 다른 중생을 위해서 비록 죽은 목숨이나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공양해야 하겠지... 저 사나운 파도와 함께 바람 앞배에 시신이 몇번 부딪으면 하나하나 떨어져나가 고기들이 데리고 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지..."
"무서운 곳입니다."
"아니오. 이런 것을 무섭다고 하면 울적

당장 저 아래 푸른 물 소용돌이에 내던지 기라도 할 듯이.
"네"
"대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런 대해일랑 인담이 이제까지 한 말이나 거동에 조급도 어떤 의심스러운 눈치를 채지 않고 평상심 그대로 인담을 스승으로 여길 뿐이었다.
그때서야 인담이 그런 대해에게 마음이 다가가서 사실을 알렸다.

인담과 대해는 벼랑위로 갔다 "저를 저 바닷속으로..."

라는 농담의 인삿말이 있었다.
"이 무욕도에야 생물이 차이고 바닷물이 무진장 곡식 아닙니까."
그때서 우녀는 잔을 한 그릇을 띄웠다. 인담이 그 물을 한모금 마신 뒤 "지금 육지에서는 이제까지의 역병말고 문둥병까지 멀쩡 8도에 문둥이 현감(顯監)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말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전 해준 소식입니다."
"눈이 맑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편이 아닙니다. 권라도 쪽에서는 백성 5만명이 일어나 총살문을 무너뜨리고 관속들을 징치했다 합니다."
"그 소식은 언제 들으셨습니까?"
"며칠전 꼭대기 보급 타에 올라갔다 왔거든... 거기 밖에 소식이 오는 곳이 어디 있었으?"
"그런데 우리 대해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지내 안색이 좋지 않는데..."
"네?"
"자꾸 누렇게 보이는데."
그때에야 대해는 인담에게 한 마디 흥변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그거야 스님께서... 스님의 눈이 노란 빛을 찾아다니기 때문이겠지요. 마치 해적이 바다위에서 보물함을 찾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만이 아닐세, 우녀보살도 지내 안색을 걱정하고 있는 공일세."
"무려한줄 압니다만... 그분께서도... 그분의 눈도 누런 빛깔이 푸르셔서 그 빛깔을 찾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왜 소식이나 두 형자들의 얼굴에는 누런 색이 없는 것일 까?"
"그것도 그럴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소식행자는 아리따운 처녀로 보이고 형자들은 어여쁜 아기들로 보이고... 저만... 누렇게 때이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겠지

"스님!"
"응?"
"스님께서는 그런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육지에서 누가 온 일도 없고 누가 육지에 건너간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저 두 형자가 건너온 뒤로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알려주었다네..."
"그렇다면 그 동풍이 육지 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육지 남새를 잔뜩 실어와서 스님께 알려주셨단 말이지요."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심심풀이로 헛것을 보신 것입니다. 스님 때문에 우녀보살 넘겨서도요."
인담이 대해를 새삼 물어보려고 쳐다보았다. 대해의 얼굴은 결코 누런 빛깔이 아니었다. 그저 바닷바람에 탄 거무튀튀한 얼굴일 뿐이었다.

그림·조향숙

'96 新 金강 영험 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놀라운 신동력! 부적교한 첨단신제품

1. 소원 성취 부적
 - 바람엔 소원성취 부적을
 - 이 부적을 몸에 차고 다니면 소원을 이루 합니다.
2. 칠성 부적
 - 후원엔 칠성 부적을
 - 이 부적을 몸에 차고 다니면, 무병장수, 부귀영화의 부처입니다.
3. 삼재 소멸 부적
 - 삼재소멸부를 추가제작하여
 - 삼재가 온 사안 안까지 한 번 제거해 줍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시곗바늘
- 무병장수
- 운전자무사고
- 합계수명장해
- 심해소음
- 심안건강
- 일체제어장치
- 영험의 신비체험

귀족의 품격을 생각하시고 만났습니다

- 무병장수교향
- 오스카(15000원)
- 1년간 A/S
- 37만 원수보증
- 크리드 크리스탈
- 18K Gold Crown
- 특수 4인 100%정품

138,000원 남·여한쌍

구입문의: 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대)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분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나한도

달력크기 / 26cm x 26.7cm 보급특가 1부당 /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